

檢, 청산가리 사건 상고 포기… 16년만 무죄 확정

법원, 부녀 자백 유도 등 지적… “기본권 보장 못해”

변호인 측 “손배소 등 청구”… 장기미제 사건 전환

16년 전 전남 순천의 한 시골 마을을 뒤 흔들었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 부녀(父女)가 범죄자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검찰은 4일 “광주고법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경허히 수 용한다”며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특히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한 점,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감·포송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점 등 형사소송법 절차나 피고인

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시인했다.

이어 “적법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제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백씨 부녀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 절차,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지난달 28일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던 백모씨(75)와 백씨의 딸(41)의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09년 7월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모씨(당시 59세)와 지인 1명을 숨지게 하고, 주된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사건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1심은 부녀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회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씨에게 무기징역,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범행에 쓰였다는 막걸리 구입 경위가 불확실한 점, 청산 입수 시기·경위와 범의학 감정 결과가 명확히 일치하지 않았던 점, 부녀의 진술 태도와 달리 검찰 작성 조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부녀는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4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은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다시 시작됐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의 강압 수사를 통해 확보된 주요 자백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녀의 손을 들어줬다.

재심 재판부는 “지적 능력과 학력, 사회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딸 백씨는 경계성 지능(지능지수 74점)을 가진 사람으로, 신뢰관계인 동생 없이 진술을 강요받았

다”며 “진술거부권 고지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은 단순한 의심을 근거로 반복적인 유도신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부녀 관계가 부적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와 방법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 부녀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많이 늦긴 했지만 상식 대로 검찰의 상고가 포기돼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가족들과 상의해 형사배상과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한편 검찰의 상고 포기로 부녀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은 다시 장기미제·미검거 사건으로 전환되게 됐다. 향후 진범을 다시 가려내는 수사 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교육청,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청’

교육부 평가…특별교부금 8억2500만원 확보

광주시교육청은 4일 “교육부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늘봄학교 지원 강화 사례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8억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국가 시책 추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주요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를 반영하는 등 4개 분야 21개 지표로 진행됐다. 4개 분야 21개 지표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노력 등 6개 지표 △‘교실혁명’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등 6개 지표 △‘함께 학교’ 학부보 참여 활성화 등 7개 지표 △‘시·도 교육청 행·재정운영 효율화’ 학교 예산운영 자율성 확대 등 2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는 21개 지표 통과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이중 최우수 등급은 모든 지표를 통과한 경우만 부여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정책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시책 추진 실적 정량 평가에서 ‘사교육비 경감 추진 노력’ 등 21개 지표가 모두 기준 이상의 성과를 인정 받

아 통과하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모든 지표 기준을 통과하면서 광주교육이 국가 시책과 국정과제를 전국에서 가장 잘 수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늘봄학교 지원 강화’ 정성평가에서 ‘늘봄은 온 마을 다함께, 광주늘봄’이 정책 추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성평가는 교육부 평가위원회에서 지역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해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나눠 각각 3편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형 늘봄학교는 교육 발전특구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온마을다 불터, 거점늘봄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 안팎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해 호평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정량·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받게 된 특별교부금 8억2500만원을 광주교육 발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역대 최고성적인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고, ‘광주형 늘봄학교’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광주교육의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교육가족과 함께 학생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대형트럭 4중 추돌 등 사망 사고 속출

50대 트럭 운전자·80대 보행자 등 5명 숨져

전남 지역에서 대형트럭의 4중 추돌 등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4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3시44분 전남 나주시 문평면 무안-광주고속도로(광주방향) 문평5터널 인근에서 A씨(50대)가 운전하는 2.5t 트럭과 B씨의 덤프트럭, C씨의 트레일러 차량, D씨의 택배 차량이 부딪혔다.

현장에 119대원 19명과 장비 7대가 투입, 인명구조·응급처치에 나섰지만 트럭 운전자 A씨는 결국 숨졌다.

또 덤프트럭 운전자 B씨도 중상을 입었으며 C·D씨는 경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형 트럭 4대가 연속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17분 영암군 서호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는 25t급 레미콘 차량 운전자 E씨(58)가 80대 보행자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80대 보행자는 농로로 추락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마을회관 앞 골터에 나락을 넣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쓰러져 앉아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오후 1시30

분 사고 현장에서 약 6~7km 떨어진 레미콘 공장에서 운전자 E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E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 8시18분 장성군 한 마을 교차로 인근 도랑에 F씨(69)가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구조했을 당시 F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F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국은 F씨가 자전거를 타던 중 배수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 3일 오전 9시23분 합평군 나산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는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

신안군 임자면 한 마을 주택에서는 3일 오후 4시46분 60대 남성이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60대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돼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영진 기자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모의훈련 4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치매환자 실종예방 교육 및 모의훈련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배회하는 치매환자를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10월 광주·전남 평균기온 18.7도 ‘역대 최고’

완도·강진 30.5도 등 일 최고기온 경신…고기압 영향

올해 10월 광주·전남의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2025년 10월 기후특성’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광주·전남지역 평균기온은 18.7도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 평균기온(16.2도)보다 2.5도 높은 수준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보이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높은 기온 속 완도·강진(30.5도), 고흥(30.4도), 보성(30.2도) 등을 기록하며 10월 일 최고기온 극값을 갈아 치우기도 했다.

다만 하순부터는 동시베리아 지역의 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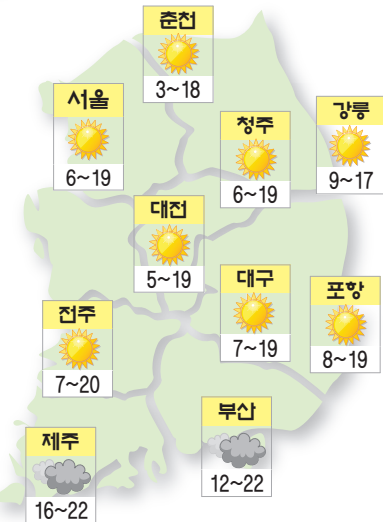
대륙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지는 등 큰 변동

을 보였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아침 기온이 전남 중부·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졌으며, 같은 날 광주에는 지난해보다 9일 빠르게 첫서리가 관측됐다.

비가 내린 날도 평년의 두 배를 뛰어넘었다. 10월 광주·전남지역 강수량은 142.0mm으로, 평년(64.7mm) 대비 2.2배 많았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57	달달 17:04
☀️	예보 17:35	달달 06:20



광주	☁️	8~21
목포	☁️	10~19
여수	☁️	13~19
순천	☁️	9~21
구례	☁️	7~21
광주	☁️	8~21
여수	☁️	11~21
목포	☁️	14~18
전남	☁️	9~21
전남	☁️	10~20

목포	미물(고)	01:14 / 13:54
여수	샘물(저)	06:42 / 19:14
목포	미물(고)	08:38 / 20:48
여수	샘물(저)	02:09 / 14:38

남구 백운광장 배수관 누수

만년필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에서 발생한 배수관 누수 사고로, 상수도 당국이 긴급 복구에 나서.

4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와 남구 등에 따르면 전남 오전 9시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 직경 300mm 배수관에서 누수가 확인돼.

이 여파로 인근 주택과 상가에 단수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 일시적으로 흐린 물이 나오는 등 수질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봉선동 1만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하루가 지난 이날까지 단수는 흐린 물이 나온다는 민원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전남 방부터 복구 작업에 들어간 당국은 이날 오전에 복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당국은 향후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조사할 방침.

윤용성 기자 yo1404@

“보석풍덩이 등껍질의 다채로운 빛깔, 1볼트로 구현”

GIST-KAIST 연구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기술 개발
빛 방향·전압으로 색 제어…광학 메모리 등 응용 기대

국내 연구진이 빛의 방향과 전압으로 색을 제어하는 초저전력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4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정현호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송영민 교수 공동 연구팀이 전기 자극과 빛의 방향(편광)에 따라 색상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카이랄(Chiral) 플라스모닉 전기변색 메타표면’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빛이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다른 색을 내는 ‘원형편광’ 특성을 가진 빛에 반응하는 나선형 금 나노구조에 전압을 걸면 색이 바뀌는 전기변색 고분자(Polyaniline)를 결합해, 기존 기술로

는 어려웠던 넓은 색상 범위(눈에 보이는 색 대부분인 287nm)를 1볼트(V) 이하의 저전압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자연계에서 각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보석풍덩이 등껍질 등 나선 구조의 ‘카이랄성(chirality)’에서 착안해, 빛의 회전 방향(LCP/RCP)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이색성’을 전기변색과 결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카이랄성(거울상 비대칭성)은 거울에 비춰도 서로 겹치지 않는 구조를 의미한다. 카이랄성을 nm수준(1억분의 1m 수준)에서 구현하면 빛의 편광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을 낼 수 있다.



정현호 교수

색이 달라지는 카이랄 전기변색 메타표면을 구현했다.

이 메타표면은 노광 공정 등 복잡한 미세 가공 없이 대면적 기판에서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산업적 확장성이 높다. 또한, 한 번 전압을 가해 색을 바꾼 뒤에는 전기변색 물질의 메모리 특성으로 인해 전원을 끊어도 약 15분간 색상이 유지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효과를 나타낸다.

제작된 메타표면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빨강·초록·파랑(RGB) 등 기본 색을 포

함한 모든 색을 구현할 수 있으며, 0.25초 이하의 빠른 색상 전환 속도를 보였다.

또 1000회 이상의 반복 구동 후에도 안정적으로 색상이 변하며, 제작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성능 저하 없이 작동해 우수한 내구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특히, 1볼트 이하의 낮은 전압으로 구동되며, 1㎠당 약 1.3mW(1.3mW/cm²) 수준의 초저전력으로 동작해, 가시광 전 영역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색상 제어가 가능하다.

연구팀은 이 메타표면을 4개의 픽셀로 구성된 광(光) 논리 메모리 소자로 확장해, 전압과 편광의 조합만으로 162가지 색상 조합을 구현했다.

이는 고밀도 광 데이터 저장과 시각 정보 암호화 등 차세대 광 기반 정보처리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